

fnart 와 함께 하는 그림산책



양혜규 '중간유형-중국신부'

짚으로 만든 존재... 나약하지만 친근한

‘세계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젊은 설치미술가 양혜규(44)의 국내 개인전이 지금 서울 이태원로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010년 아트선재센터 전시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의 타이틀은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시공간 그 어디에도 코끼리는 없다. 미술관 측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조지 오웰의 수필 ‘코끼리를 쏘다’와 로맹 가리의 소설 ‘하늘의 뿌리’에서 제목을 따왔는데,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코끼리는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이나 연약한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블라인드, 방울, 조롱박, 머리끈, 밧줄, 조화, 전선, 휴대폰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작업해왔던 작가가 이번에 새로 들고나온 재료는 짚풀이다. 유목민처럼 서울과 독일을 오가

며 작업하는 작가는 지난해 2월 일본 가나자와의 어느 공원에서 짚으로 감싼 큰 나무들이 서있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중간유형’ 시리즈는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 인도네시아의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러시아의 현대 이슬람사원 라라툴판 등을 구체적으로 참조한 작품과 그 사이에 상상의 존재를 형상화한 작품 등 모두 6점으로 이뤄졌다. 그중 하나인 ‘중간유형-중국신부’는 인체를 연상시키는 형상에 족두리, 조롱박, 방울 등이 달려 있어 친근감을 준다.

이번 전시에는 이 밖에도 ‘창고 피스’(2004년), ‘서울 근성’(2010년), ‘성채’(2011년), ‘상자에 가둔 발레’(2013년) 등 양혜규라는 이름 석자를 세계 미술계에 각인시킨 작품들도 출품됐다. 전시는 5월 10일까지.

ism64@fnnews.com 정순민 문화스포츠부장